

예수님 이야기

⑧ 가롯 유다

나 레 이 셴 어느 날,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는
몰~래 아주 몰~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
대제사장들과 만났습니다.

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.

가 롯 유 다 어서 저번에 했던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.
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준다고요?

대 제 사 장 흐흐흐. 여기 은전 30개요. 영수증은 필요 없소....
다만!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흥분해서
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사람들 눈을 피해
조용히 넘겨야하오.

나 레 이 셴 그때부터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
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.
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.

요 한 주님! 유월절에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미리 예약을
해놓아야 할 텐데, 어느 집으로 잡아놓을까요?

베 드 로 오~? 벌써 예약하는 거야?
예수님! 전 개인적으로다가 피자가 너무 먹고싶은데...!

예 수 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머리 위에 얹고 가는 사람이 있을거야.
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전해주렴.
"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,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서
유월절을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." 그러면 주인이 잘 안내해 줄 거야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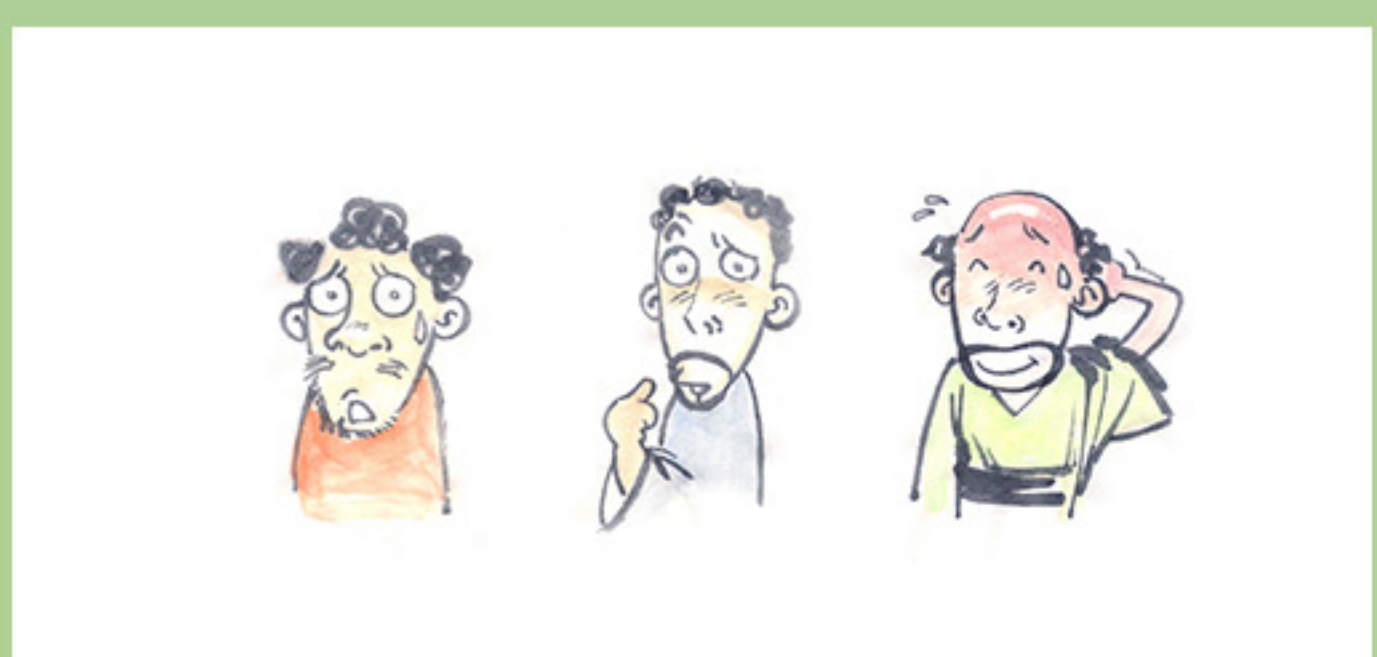
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 저녁 식사 준비를
하였습니다. 유월절의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고,
예수님과 열 두 제자들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였습니다.
무슨 생각을 하시는지,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
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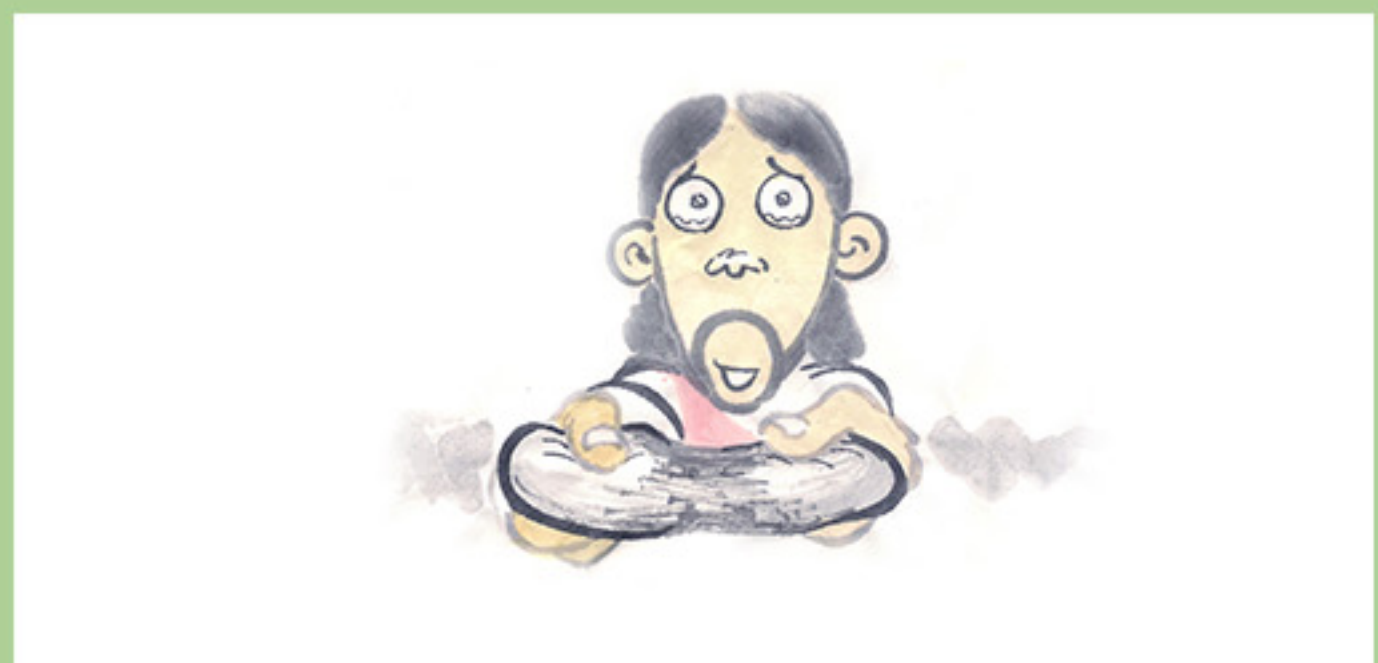
예 수 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,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
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.

제 자 1 네?? 주님! 저는 아니죠...?

제 자 2 주님,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????

제 자 3 어? 주님 혹시 저... 인가요?... 난가?





예 수 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열 두 명 중 하나,
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.
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겠지만
나를 배반한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.
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...

가 롯 유 다 아니 선생님, 저는 당연히 아니죠?

예 수 님 네가 그렇게 말하였구나.

제 자 들 무슨 말씀이시지..? / 오늘 유다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..? /
몰라몰라.. 오늘 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..

나 레 이 셴 유다는 뽀뽀스럽게도 예수님께 질문하였고,
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기셨습니다.
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.

.....
나 레 이 셴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
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.

예 수 님 자, 받아 먹어라. 이것은 나의 몸이다.

나 레 이 셴 또,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
말씀하셨습니다.

예 수 님 자 이것을 받아 마셔라. 이것은 나의 피다.
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 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
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.

나 레 이 셴 제자들은 왠지 어렵고 이해하지 못한 채 무거운 분위기에서
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.
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, 이렇게 흘러갔습니다.